

UAE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접견

2026년 3월 16일 | 아부다비

UAE 대통령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각하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강훈식 각하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 강훈식 특사는 우호국인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각하가 전하는 안부와 함께, UAE의 지속적인 안보와 발전,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각하께 전달했다. 이에 각하는 강훈식 특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 그리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역내 정세와 그로 인한 중대한 영향, 그리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사안들도 논의됐다. 강훈식 특사는 UAE가 자국의 안보와 영토 보전, 국민을 지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대를 확인했다.

양측은 역내 사안 해결에 있어 대화와 외교를 우선시하는 것이 추가적인 긴장을 예방하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훈식 특사는 또한 UAE가 한국 국민을 비롯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기울이고 있는 관심에 대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각하께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이는 절차 간소화 및 이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일환으로, 특히 우선 협력 분야에서 UAE와 대한민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궁 개발 및 전물용사 담당 부의장 셰이크 테이압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각하와, 대통령궁 특별업무 담당 부의장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각하를 비롯한 다수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